

# “혼자서는 이루기 어렵다” 기술자·투자자 이어주는 다리



## 실리콘밸리의 스마트 기업

기업이라면, 기업가라면 꼭 한 번 보고 싶은 곳이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자가 모여들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시대를 만나면 천문학적 수익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실리콘밸리로 찾아온 기술자와 투자자가 모이는 장소, 그곳이 실리콘밸리의 브릿지(bridge)기업 'Plug&Play'다.



'Plug&Play' 로비에서 선 채로 회의중인 기업 관계자들. 곳곳에는 각종 기업들의 명함과 리플렛, 알람표 등이 비치돼 있었다.



'Plug&Play' 2층 사무실 공간 전경. 칸막이 없이 책상과 의자만이 설치돼 있으며, 신생기업 관계자들이 여기서 투자자설명회를 준비한다..



### 2006년 설립 'Plug & Play'

## 아이디어·기술 가진 업체들 6개월간 머물며 검증 거쳐 한국 기업 15곳도 제휴

지난 200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아랍계의 아마디 사이드(Saeed Amidi)의 CEO겸 투자자가 운영하고 있다. 아마디 사이드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믿음직한 투자자를 만나기 어렵고, 투자자는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업체를 실리콘밸리에 내놓았다.

'Plug&Play'에 입주한 업체들은 6개월 동안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듬어 정기적으로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잡는다. 또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세계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경향이나 실리콘밸리 및 주변 대학들의 기술 변화상을 살피기 위해 연수를 받기도 한다. 올해 연수를 받는 기업은 120여 곳에 달한다.

2층 건물의 이 회사는 로비와 회의실, 사무실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장소는 '개방'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회사에 들어서면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1층 로비에서 5~6명이 선 채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느 공간이든 만나고 모여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층에는 칸막이가 없이 책상과 의자만이 놓인 넓직한 사무실이 있다. 책상 위에는 기업 팸플릿이 있고 그 아래에서 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투자자설명회를 대비해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듬고 있었다. 한국 업체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들의 회의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누구에게

나 공개될 수 밖에 없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모두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인정받을 방법을 구상하는데 몰두할 뿐 옆 책상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6개월 안에 투자자를 찾지 못하거나 2년 내 성장하지 못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신생 업체'들은 그만큼 절박한 시간이다. 최근에는 주로 미디어 모바일 관련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9월18일에도 구글이나 이베이 등의 투자자 400여명이 이곳을 찾아 신생업체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도 이들 기업 관계자들은 서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뒤적이며, 투자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몇몇은 아예 이 공간에서 밤을 샜는지 부시시 한 몰골로, 오전 10시가 넘어서 자리에 앉는 동료로부터 커피를 건네 받았다.

이 회사는 기업들의 입주금과 정보이용료, 그리고 아마디의 투자에 의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일 이들 기업들을 지켜보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끌어모아 투자하는 아마디의 투자 수익은 전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מיד CEO는 "엔젤 투자자들, MIT나 스탠퍼드, 버클리 등 우수한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기술과 아이디어, 세계적인 기업과 이제 막 발돋움하는 기업, 그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곳"이라며 "굿학교에서 교수, 학생들의 아이디어, 한국의 대학 생활에게도 아이디어를 받는다."

잭키 헤르난데스(Jackie Hernandez·여) 부사장은 "아이디어를 주고 받는 것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며 "도움 없이 혼자서 무엇을 이루기는 어려우며,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몇몇 커넥션, 소비자, 주변 동업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 기업은 정직한 투자자를 만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에 충실한 이 회사는 이런 투자자와 기업의 사이에서 '정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기업 15곳이 이 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데뷔'를



의료장비 기술을 갖고 'Plug&Play'에 입주해 있는 이선우씨.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한 뒤 좀 더 큰 시장에서 경쟁하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 사업가들도 이 공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리학 전공한 뒤 의료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이선우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나치게 아이디어에 집착하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실패를 부른다"며 "아이디어 제공자, 투자자, 경영전문가 등의 협업시스템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를 장악한 대기업들이 기술을 낚아챌 것을 우려해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가들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으며, 협업하고, 나눠 갖는 것이 '독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끝>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 기획은 지방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 데!!

**시공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베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